

글다듬기의 이론과 실제

수업목표 : ‘글다듬기’ 공부를 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글다듬기의 원칙들을 안다.
글다듬기 지도의 실재를 살펴본다.

수업내용 : ‘글다듬기’ 공부를 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글다듬기의 원칙과 내용면과 형식면,
학년별 지도 기준들을 살펴본다. 또, 글다듬기 지도 사례를 본다.

- 목차 : 1. 글다듬기의 뜻
2. 글다듬기의 목표
3. 글다듬기의 원칙
4. 글다듬기의 지도 내용
5. 학년별 지도 기준
6. 글다듬기의 실제
1) 글다듬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2) 생활이나 생각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글다듬기가 필요해요
3) 사실을 객관으로 쓰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4) 내 삶을 정확히 그리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5) ‘나는 이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려 하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세요
6) 글이 밋밋하고 재미없다면 아이 삶을 살펴보세요
7) 글보다 먼저 ‘삶’이지요
8) 줄거리를 그럴 듯 꾸며 쓰는 글은 감동을 전할 수 없어요
9) 얼거리짜기부터 글다듬기까지 (수업사례)
10) 글다듬기 공부보다 글 ‘쓰기 전’ 공부가 더 중요하지요
11) 때에 따라서는 종이에 교사의 의견을 꼼꼼히 적어줄 수도 있어요
7. 마무리 글
첨부. 글의 갈래로 보는 대강의 글다듬기 기준표
교정부호

글다듬기의 이론과 실제

나명희

◆ 글다듬기의 뜻

*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잘못된 곳, 불충분한 곳,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고치거나 보태거나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글 고치기라 말하기도 한다.

◆ 글 다듬기의 목표

- * 생활이나 생각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
- *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붙잡는 힘을 기르고 생각을 키워 나가기 위해
- * **결코 보기 좋은 글을 꾸며 만들거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 글 다듬기의 원칙

* 글을 쓴 사람 자신이 스스로 한다. 토의해서 고치더라도 쓴 사람의 생각을 물어서 본인이 수긍한 뒤에 고친다.

- *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쓴 글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 다듬을 것이 많을 때는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지도
- * 학년에 따라, 같은 학년이라도 개성, 글쓰는 힘, 환경에 따라 달리 한다.
- * 맞춤법과 띄어쓰기
- * 문단 나누기
- * 자세히 쓰거나 줄이기
- * 마지막 부분의 다짐하듯 쓰는 의례적인 표현
- ※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 글다듬기 지도의 내용

내용면

- * 쓰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나타났는가?
- *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곳, 확실하지 않은 표현은 없는가?
- *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쓴 것이 아닌가?
- * 사실에 꼭 맞는 말이요, 글인가?
- * 좀더 자세히 써야 할 점은 없는가?
- * 필요 없는 말, 줄여도 될 부분은 없는가?
- * 자기 자신의 말로 썼는가?

형식면

- * 틀린 글자, 빠뜨린 글자는 없는가?
- * 문법과 어법에 맞게 썼는가?
- * 띄어쓰기는 잘 되었는가?

- * 구두점과 부호는 틀림이 없는가?
- * 문단은 잘 나누어졌는가?
- * 그 밖에 원고지 쓰는 법을 지켰는가?

◆ 학년별 지도 기준

* 1, 2학년 :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즐거운 글쓰기 공부를 해야 할 때이다.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들이 글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하듯이 솔직하게 쓰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글쓰기가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학년 아이들 글은 고학년 아이들 글보다 훨씬 솔직하고 생생한 표현도 많이 살아있고, 거침이 없다. 그런 저학년 아이들 글 특성을 잘 살려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잘 들어났나 살펴주고, 문장 끝에는 온점을 찍을 수 있게 하고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쓸 정도 지도하면 되겠다. 아이들 글 쓰는 힘에 따라 “ ”와 ‘ ’ 사용도 알게 하면 더 좋겠지요. 내용면에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썼을 경우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빠뜨렸을 때 좀더 자세히 쓸 수 있게 하면 되겠다.

1, 2학년 아이들 글을 보면 글을 끊어 쓰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써내려가기도 하고 쓰다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도 한다. 또 어법에 맞지 않거나 저만의 입말이 대체로 많이 살아있고 갑자기 ‘~했다.’체에서 ‘~했습니다.’체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 특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같은 이어주는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고, 뒤에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도 학년이 올라가고 글쓰기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고쳐지기도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저학년 아이들이라도 글쓰기 공부해온 시간이 좀 된 동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움말을 주면 된다.

* 3, 4학년 : 3, 4학년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써내려 갈 수 있고, 보고 들은 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만의 비밀이나 부끄러운 일, 글로 써서 자기에겐 불리할 것 같은 이야기들은 글로 쓰지 않으려고도 할 때이다. 이 때는 무엇보다도 글쓰기 공부시간이 어떤 이야기도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바탕이 되어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지도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아보기 힘들 때는 일의 순서에 따라 잘 떠올려 차근차근 쓸 수 있게 한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장부호의 바른 쓰임을 알게 한다. 틀린 글자 가운데,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치도록 지도한다. 문법이나 어법도 심하게 틀린 경우는 바로 잡는다. 높임법을 바르게 쓸 수도 있어야겠다. 이 때까지도 글 마지막 부분에 ‘나는 어찌어찌 하겠다.’ ‘참 재미있었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다짐하듯 쓰는 의례적 표현을 쓸 경우에 그 점을 함께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다.

* 5, 6학년 : 5, 6학년 이 때는 몸과 마음이 훌쩍 크는 때이다. 지적인 대화나 역사, 인물,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논리를 펼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적욕구나 관심을 키울 만한 기회가

없이 기계처럼 돌고 도는 생활과 공부의 중압감에만 시달리는 생활을 하다보면 사고의 폭도 좁아지고 미디어의 유행에 민감해져 가볍고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는 때이다. 차츰 글감의 범위도 넓혀주며 사물과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반면 아무리 하찮은 일상이라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훌륭한 글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공부를 해오지 않은 이 또래 친구들의 글을 보면 자기의 삶은 담지 않고, 관념으로만 글을 쓰기도 하고 쓸데없는 멋을 부리거나 대충 건성건성 쓰는 일도 많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지도한다. 글이 관념으로 흐르지 않고, 싱싱한 느낌과 생각, 대화, 행동이 자기 말로 씌어질 수 있도록 한다. 문단의 연결로 글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글을 쓸 때 문단에 유의해서 쓸 수 있게 한다. 문단을 구성할 때, 충분히 쓰고자 하는 바를 다 담았나 살펴보고 글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도 살펴보면 좋다. 이 때 같은 말이 필요 없이 되풀이 된 것이 확실할 때는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글을 쓰고 난 뒤 다시 읽어보고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틀린 글자, 문법이나 어법에 어긋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 고쳐보게 한다. 이때 문단을 옆두에 두고 글을 쓰면서 나눈 문단이 옳게 되었나 살펴보게 한다.

전학년 사투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비어나 속어 같은 가벼운 말들은 삼가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 글쓰기의 영향으로 눈물(ㅠㅠ), 웃음(^^) 같은 표현들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말줄임표도 필요 이상 쓰고 있고, 또 한 문장 한 문장 줄 바꾸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해주어야겠다.

◆ 글다듬기의 실제

1) 글다듬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 자세히 쓰지 않아도, 어법상 조금 틀려도 아이들 마음과 표현이 살아있는 저학년 글**

노란꽃 / 현진환 (광남 1)

오늘 학교 갈 때 집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꽃이 있어서 봤다. 누나는 그냥 갔고, 나는 살짝 보고 갔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어왔다. 그 다음 학교를 갔다.

어제 짹을 바꾼 일 / 이상호 (광남 1)

어제 짹을 바꿀 때 나는 승현이랑 짹이 되고 싶었다. 근데 승현이는 좋아하는 여자가 짹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글씨를 아주아주 잘 쓰는 짹이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는데 하루만 지났는데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친하게 지냈다.

약속을 안 지킨 오무라이스 / 2학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점심 때만 해준다는 오무라이스가 식탁에 놓여져 있었다. 나는 엄마한테 따졌더니 엄마가 “그럼 먹지 말래?”하자 나는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는데 다음부터는 점심에 해줘.” 나는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약속을 안지키니 좋았지만 그랬다.

아침 / 김남준 (광남 2)

오늘은 수학경시대회 날이다. 그래서 나는 밥과 국을 먹었다. 그런데 누나는 모닝빵, 짬, 스프를 먹었다. 나는 90점이나 백점을 맞을 것 같다. 오늘은 시험을 잘 보려고 밥을 먹었지만 내일은 수학경시대회가 아니라서 모닝빵, 짬, 스프를 먹을 거다.

2) 생활이나 생각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글다듬기가 필요해요

* 생활이나 생각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 글

수학시간 / 이상호 (광남 2)

수학시간은 너무 싫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① 하두 어려워서 동규에게 “표동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가르켜 줘라. 제발!”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규가 가르쳐 주었다. ② 나는 이해가 안 갔다. ③ 수학을 하니깐 똑똑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틀리지 말고 하겠다.

① 언제? - 오늘 수학시간에

②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했어? - 하는 수 없이 동규 것을 베꼈다.

③ 이 생각은 언제 한 거야? 그때 동규 것을 베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을 때 마음은 어땠는데? - 선생님께 검사 받으러 갈 때 좀 불안하였다. 왜냐하면 동규거랑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동그라미를 해주셨다.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갔다. 하는 수 없이 동규 것을 베꼈다. 선생님께 검사 받으러 갈 때 좀 불안하였다. 왜냐하면 동규거랑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동그라미를 해주셨다.’로 바꾸었다.

3) 사실을 객관으로 쓰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 드러나지 않은 글

엄마 아빠 나빠 / 오연주 (광남 2)

① 어저께 내 동생 경환이가 놀아달라고 해서 내가 놀아주었는데 경환이가 잘못해서 이마에 흠이 났다. 그런데 ② 엄마와 아빠께서는 나만 혼을 내셨다. 어저께는 진짜 안 좋은 날이었다. (2000. 12. 7)

① 어제 언제쯤, 어디에서 무슨 놀이를 어떻게 하다가 경환이가 다쳤을까? - 밤에 거실에서 잡기 놀이를 했다. 경환이가 도망가다가 거실 들어오는 기둥에 부딪쳐서 이마에 흠이 났다. 경환이가 ‘으앙’ 울음을 터트렸다.

②엄마 아빠가 뭐라면서 혼내키셨지? -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동생을 못 봐!”

“내가 잘못된 거 없고 경환이가 잘못된 거지. 경환이가 놀아달래서 놀아준 거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뛰면서 왜 놀아.”

나는 정말 화가 나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 고친글.

어제 밤에 거실에서 동생 경환이랑 잡기 놀이를 했다. 경환이가 도망가다가 거실 들어오는 기둥에 부딪쳐서 이마에 흠이 났다. 경환이가 ‘으앙’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와 아빠가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동생을 못 봐!”

“내가 잘못된 거 없고 경환이가 잘못된 거지. 경환이가 놀아달래서 놀아준 거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뛰면서 왜 놀아.”

나만 혼을 내셨다.

나는 정말 화가 나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4) 내 삶을 정확히 그리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 부끄러운 일이나 속상했던 일들을 밝혀 드러내지 못한 글

구구단 / 김미영 (광장 2)

① 구구단을 7단까지 외우는 게 숙제다. 근데 늦게까지 안 해서 ② 엄마한테 혼났다. 구구단을 다 외워야 잘 수 있다.

“ $6 \times 1 = 6$, $6 \times 2 = 12$, $6 \times 3 = 18$ ”

“이제 누워서 외워.”

“네”

나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2002. 7. 17)

① 언제 있었던 일이야?

② 엄마한테 무섭게 혼났나 봐. 다 외워야 잘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보니까. 어떻게 혼내셨어?

→ 미영이는 부끄럽거나 속상했던 일들을 쓰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여 써본 글이다. 글감은 용감하게 잡아서 썼는데 막상 그 상황을 자세하게 밝혀 쓰지는 못했다. 글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눈 뒤 상황을 좀 더 또렷이 밝혀 쓸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만 다시 쓴 글이다.

구구단 / 김미영 (광장 2)

어제 구구단을 7단까지 외우는 것이 숙제였다. 그런데 늦게까지 안 외워서 엄마한테 혼났다. “엄마가 야가 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어깨를 회초리로 때리셨다. 나는 겁이 났고, 후회를 했다. 엄마 눈치가 끝까지 다 외우고 재울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외웠다.

좀 잘 외워지자 엄마가 “이제 누워서 외워.” 그러셨다. 나는 누워서 외우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2002. 7. 19)

5) ‘나는 이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려 하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세요

* 하고 싶은 중심 이야기(알맹이)를 생각하지 않고 쓴 글

붓펜 글씨 / 3학년 남

오늘 학교에서 5교시, 6교시에 붓펜 글씨도 쓰고, 붓펜 그림도 그렸다.

나는 연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붓펜으로 글씨도 썼다.

선생님이 “잘 썼다.”고 하셨다.

나중에는 붓 화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그려주고, 돈도 줄 거다. (2003. 9. 9)

→ 이 글을 쓴 아이는 커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늘 얘기하던 아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그려주고 돈도 줄 거라고 썼다. 이 글을 보면서 아이가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중심에 두어야 할지 몰라 가다가 길을 잃었지 싶다. 그래서 물었다.

“붓펜을 오늘 처음 사용해본 거니?”

“네”

“붓펜으로 그림 그리고 글씨 쓸 때 좀 재미있었지?”

“네. 부드러워서 느낌은 좋은데 마음대로가 안 가져요. 흔들흔들해서 글씨도 이상하게 써지고요. 얼굴을

그리는데 동그라미도 동그랗게 안 돼요. 눈이랑 코를 찍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는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선생님에게 칭찬까지 한 마디 들었으니 그날 이 글감을 선택했을 수밖에. 그렇지만 이 글에서 그 재미있었던 느낌이나 활동을 자세 히 쓸 생각은 못 했던 것이다. 이 글은 글다듬기는 하지 않고,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점을 좀더 공들여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만 나누었던 글이다.

6) 글이 밋밋하고 재미없다면 아이 삶을 살펴보세요

* 밋밋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글

종이 접기 / 3학년 여

어제 선생님께서 종이 접기를 한다고 하셨다. 색종이 4장으로 하는데 두장은 16등분으로 잘라오라고 하셨다. 나는 잘라서 가지고 갔다. 오늘 종이 접기를 하는데 나처럼 접어온 애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제일 편했다. 제일 빨리 했다. 내가 다 하고 서영웅을 도와 주었다. A4용지 2장에 1장씩 붙여서 밑에다가 썼다.

두장을 다 하고 뒤에 있는 애가 느리게 해서 내가 조금 도와주었다. 그런데 애들이 떠들어서 벌을 썼다.

→ 이 글은 함께 모임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 가져온 아이 글이다. 이 모듬 아이들 글이 한결같이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한데,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내보인 글이었다. 내가 만나는 아이가 이런 글들을 쓸 때 어떻게 도움말을 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어보면 아이는 글 쓸 거리를 찾다가 쓸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궁색하게나마 미술시간에 있었던 이 일을 쓰고 있다고 보인다. 3, 4학년에 들어서면 공부양도 많아지고, 학원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아이들의 생활이 풀이 죽고 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아이들 생활이 밋밋해져서 글 또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 이 글을 가지고 글다듬기를 한다거나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글쓰기 시간이나 바깥수업을 해보거나 …….

7) 글보다 먼저 ‘삶’이지요

* 글보다 아이 마음과 생활을 살펴주어야 할 글

짜증 나! / 3학년 남

학교에서 글짓기 그리기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 때 내 상이 나오지 않고 나랑 친한 친구들 것도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께 나, 친구들을 여쭙보러 갔다. 나, 친구들이 왜 잘 썼는데 상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3학년인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상은 한번씩은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상필아 너는 일기상도 받고 저번에 글짓기 상을 받았으니까 양보 좀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짜증이 났다. 못타는 아이들은 못타는 건데 우리들은 왜 안 주시는지 분명히 둘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그 생각 때문에 한번 걸리고 말았다. 왜냐면 상을 타면 게임을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이 상을 탔으니 형이 또 놀릴 텐데 라고 벌 쓸 때도 그 생각에 이번엔 귀를 맞고 뺨을 맞았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오늘은 혼나서 재수가 없을 것 같다.

피아노 칠 때도 집에서 숙제를 할 때도 영어 전화 받을 때도 그 생각 때문에 피아노 선생님께 혼나고 숙제할 때도 혼나고 영어 전화 받을 땐 시험 결과 짜증난다고 말해서 영어 전화 받고 엄마께 또 혼났다. 내가 오늘은 너무 많이 혼났다. 원래는 하루에 한번씩도 혼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흔났다.

그래서 상을 못 탄 것은 못 탄 거니까 그냥 게임을 하지 말고 다음번 기회를 노려야겠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께 짜증난다고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참 나쁜 아이가 되었다. 다음부터는 상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다녀야겠다.

→ 내가 만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다면 무슨 말부터 나누어야 할까? “그래, 정말 너 오늘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 마음을 위로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 데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 앞에서 대놓고 선생님과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직접 말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아이는 글을 쓰면서 화를 많이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아이를 격려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얘기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이 글은 글다듬기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주어야 할 글인 것이다.

8) 줄거리를 그럴 듯 꾸며 쓰는 글은 감동을 전할 수 없어요 - 사실을 정확하게 구체로 써야

* 한 편의 동화 같은 글 두 편

미안한 내 마음 / 4학년, 여

수업을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뭐지?’

호기심 많은 내 마음이 자연스레 나를 그 곳으로 이끌었다.

“와, 예쁘다!”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러 종류의 액세서리들을 펼쳐놓고 팔고 있었다. 머리핀·목걸이·팔찌·반지 등이 내 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중에서 꼭 하나 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나는 살 수가 없었다.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꼭 누른 채 그냥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다.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보석함부터 뒤졌다. 그 동안 모아 둔 액세서리들이 꽤 있었지만, 교문 앞에서 봤던 예쁜 액세서리는 없었다. 파란색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 팔찌. 그 팔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잠시 후, 나보다 조금 늦게 언니가 들어왔다. 언니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게 말을 걸었다.

“너, 오늘 숙제 다 하고 나면 내가 줄은 거 줄게.”

나는 언니의 말이 끝나자 엉뚱한 생각을 했다. ‘줄은 거 준다고 했는데 그게 팔찌였으면...’하고 말이다.

드디어 잠잘 시간이 다 됐을 때,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언니가 팔찌를 주는 것이었다. 오후 내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그 팔찌를 받아 들고 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그 팔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 내가 일부러 너 생각나서 산 거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 있어. 우리, 이제부터 이 팔찌를 자매 팔찌로 정하는 거야. 알았지?”

언니로부터 그 팔찌를 받아 든 순간, 평생 소중히 간직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언니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보석함을 뒤지다가 내 자매 팔찌를 보게 됐다. 무관심으로 인해 보석함 안에서 이리저리 끈이 튀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언니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정은아, 너 자매 팔찌 잘 있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언니를 똑바로 보기가 뭣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다. 1년 전, 잃어버리지 말자고 신신당부하던 언니. 나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주 특별한 친구 / 6학년 남

내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자전거이다.

①나는 처음 자전거를 샀을 때 정말 좋았다. 그 때는 키가 작아서 자전거를 탈 때 어머니가 안장에 올려 줘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 타는 일이 재미있었다.

②자전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때 나는 조마조마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그럽게 말씀하셨다.

“괜찮아. 자물쇠는 또 만들면 되지.”

그래서 자물쇠를 새로 바꿨다.

③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가는 것은 즐겁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쪽으로 갔다. 63빌딩까지는 지난번에도 가 봤다. 호기심을 가지고 더 멀리까지 갔다. 처음 보는 길이 펼쳐졌다.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니 어느새 반포지구공원이 나왔다.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더 멀리 가지 못하고 허벅거리며 되돌아와야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자전거와 내가 멀어지게 됐다. ④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게 롤러블레이드를 사 주신 것이다. 그 날부터 나는 자전거를 잊어버렸고, 자전거를 탈 시간에 롤러블레이드를 탔다.

“너 롤러블레이드 언제 샀어?”

친구들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이 아주 정답게 들렸다. 친구들과 한 무리로 어울리게 된 것이다.

내 친구들은 거의 다 롤러블레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롤러블레이드를 탔다.

그 때는 자전거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았다.

지금은 자전거를 더 자주 탄다. 그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자전거를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6학년이니 자전거를 번쩍 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더 빨리 달린다. 이제는 자전거와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도 항상 자전거를 탄다. 앞으로도 자전거와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 이 두 글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어린이신문에 실렸던 글이다. 달마다 잘된 글을 뽑아 소개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실렸던 글이다. 이 글을 보면 겪었던 일을 쓰고 있는데 언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밝혀 쓰지 않고 있다. <미안한 마음>은 학교 앞에 액세서리 장사가 온 날이 1년여 전 일이란 것을 글 끝에 가서야 알 수 있다. 오늘 언니가 “정은아, 너 자매 팔찌 잘 있지?”하고 묻자 어느 날 본 보석함에 아무렇게나 끈이 얽힌 채 있던 액세서리가 떠올랐고 1년여 전 언니가 자매 팔찌를 선물했던 그 날 일이 떠올랐고 그래서 미안했다고 쓰고 있는데 따져보지 않으면 일의 전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던 데부터 차근차근 가감 없이 써내려갔더라면 훨씬 아이다운 맑은 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글이다. 시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한 편의 동화처럼 멋있게 써 내려가다가 글의 진실성이 깎이고 말았다. <아주 특별한 친구>는 ①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가 언제였을까? ②는 흐름상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다. ③도 언제 적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④도 그냥 어느 날이다. 이 글은 정확한 시점 없이 지난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늘어놓고 있다. 지금은 자전거를 더 많이 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글인데, 이 글도 <미안한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옛날 추억을 더듬어 줄거리를 그럴 듯이 멋지게 꾸며 머리로 쓰고 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해지는 감동은 무척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9. 이렇게 해보았어요 (수업사례)

* 얼거리짜기부터 글다듬기까지

다음은 2차시에 걸쳐 수업한 내용이다. 예진이는 텔레비전을 좋아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는구나 싶어서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1차시 공부 내용

- * 내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써 보자
- * 내가 티브이를 보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나?
- *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반응하지?

<화령>

* 너, 할 것 다했어? 그렇게 많이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것만 보고 꺼어! 엄마가 끄면 기분 나쁘니까 니가 네손으로 꺼.

*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엄마도 이따가 티브이 보지 마. 있다가 노란손수건하고 뉴스 보기만 해봐와!

<예진>

* 너, 공부 했어? 너, 젓가락학원 다닐 때 학원 끊어주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지 또 보낸다!

*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선 혼나고 공부한다.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진짜 치사!”

예진이는 수업이 끝날 때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티브이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글도 써보자고 했습니다.

2차시 공부 내용

지난 시간 ‘내가 보는 티브이 프로들’을 적어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면 줄일 생각이나 계획은 없는가?
- * 사람들은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들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야기를 나눈 바탕으로 글 쓸 얼거리를 짜보았다.

♠ 예진이의 얼거리 짜기

- * 내가 즐겨보는 프로, 내 생각에도 너무 많다.
- * 텔레비전 시청을 줄일 방법과 다짐 몇 가지
- *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화령이의 열거리 짜기

처음: 난 평소에 티브이를 보며 즐거움을 찾는다.

중간: 티브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엄마는 보면서 우리에겐 보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너무 알뜰다.

티브이를 보며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책도 더 볼 수 있다.

끝: 앞으로 티브이 보는 양을 줄여야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은 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쓴 글이다.

텔레비전과 나 / 현예진(광남 6)

내가 즐겨보는 프로들은 많다.

지난 시간에 내가 보는 프로들을 써보았는데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내가 써 본 것이 한쪽면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많았다.

②하루에 보통 4편 정도 되어서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었다.

①내가 그렇게 써놓고 봐도 내가 왜 이러나 정말 내가 바보가 됐나 걱정이 들었다.

③하지만 나는 텔레비전을 줄일 수가 없다.

시간만 되면 저절로 손이 간다.

나는 그래서 하루에 2~3편만 볼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볼 것이고 누가 보자고 하여도 나는 절대 안 볼 것이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수학이라든지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새로 나오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안 볼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면 더 보고 싶기 때문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절대 손이 가도 그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고 나오면 텔레비전을 잠깐 볼려고 하는데 텔레비를 끄고 방에서 컴퓨터로 보고 있었다.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엄마는 계속 보고 있을 때 화가 났다. 그때 엄마도 안 봐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을 줄일 때 엄마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2003. 9. 15)

→ 예진이는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고 열거리도 짜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문단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마다 줄 가르기를 하고 있고, ①~③은 차근차근 쓰지도 못하고 있다.

티브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 이화령(경북 6)

난 평소에 티브이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 어른들은 티브이가 시간 도둑이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꼭 헛되게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티브이라고 해서 꼭 나쁘지 않다는 것을 어른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일단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지식도 주기 때문이다. ①그리고 제일 알미운 것은 우리에겐 보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볼 것 다 보는 것이 제일 알미다.

티브이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티브이를 통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책도 더 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데 말이다. 책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어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건강은 “맨투맨”과 “비

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린 늘 티브이가 나쁘다는 개념 안에서 티브이를 사용하고 있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티브이의 장점만 생각하며 생활할 것이다. 또 너무 많이 보아서는 안됨으로 티브이를 보는 양을 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은 꼭 볼 것이다. (2003. 9. 15)

화령이는 열거리 짜기 한 대로 문단도 나누어가며 썼다. 열거리 짜기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글을 써놓고 보니 ㉠의 내용은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서로 내용면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억지스러운 데는 없나 살펴봤고, 문장이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곳, 단락은 제대로 나누어졌나, 단락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야기 나누었다.

♣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다듬어 고쳐 쓴 글

* 내용면

* 문장이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곳

* 단락 나누기

텔레비전과 나 / 현예진(광남 6)

내가 즐겨보는 프로들은 많다. 지난 시간에 내가 보는 프로들을 써보았는데 너무 많았다. 내가 써보니 공책 한쪽 면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많았다. 내가 그렇게 써놓고 봐도 내가 왜 이러나 정말 내가 바보가 됐나 걱정이 들었다. 하루에 보통 4편정도 되어서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텔레비전을 줄일 수가 없다. 시간만 되면 저절로 손이 간다.

나는 이제 하루에 2~3편만 볼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볼 것이고 누가 보자고 하여도 나는 ㉠절대 안 볼 것이다.(안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수학이라든지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새로 나오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안 볼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면 더 보고 싶기 때문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손이 저절로 가도 그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고 쉬려고 나올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왜 컸지?”하고 끄시는데 그 때는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보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계속 보고 있을 때 화가 난다. 그때 엄마도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텔레비전을 줄일 때 엄마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2003. 9. 15)

→함께 고쳐본 글이다. ㉠을 읽고는 화령이가 “진짜?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묻자 예진이가 한 발 물러서 ()로 고쳤고, ㉡는 화령이나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한 부분이다. 예진이는 이 글을 고치고 다듬어 쓰고 난 뒤 무척 흐뭇해했다. 그 뒤 티브이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티브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 이화령(경북 6)

난 평소에 티브이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 어른들은 티브이가 시간 도둑이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꼭 헛되게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티브이라고 해서 꼭 나쁘지 않다는 것을 어른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일단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지식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티브이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유익한 점이) 참 많다. 티브이를 통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책도 더 보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다. 책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어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건강은 “맨투맨”과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②우린 늘 티브이가 나쁘다는 개념 안에서 티브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티브이는 좋지 않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③하지만 앞으로는 티브이의 장점만 생각하며 생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야겠다.) 우리에게 ④이익이 되는 (유익한)프로그램은 볼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티브이 보는 양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3. 9. 15)

→처음 쓴 글에서 ㉠은 빼기로 했고, ①과 ④는 더 정확한 단어로 고쳤다. 그리고 ②와 ③은 좀더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고쳤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단을 의식하고 그 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를 충분히 쓰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나면 글이 훨씬 짜임새가 있고 내용도 충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쓸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마음속으로든, 종이에든 짧게라도 얼거리를 짠 뒤 글을 쓰게 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10) 글다듬기 공부보다 글 ‘쓰기 전’ 공부가 더 중요하지요

* 글을 쓰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 쓴 글

저작권법 / 한상준 (광남중 1)

요즘 가수들 팬 카페는 저작권법으로 난리다. 저작권법이란 한 음악은 작곡가, 작사가들의 것이므로 그들의 허락 없이 음악을 무료로 공유하고 파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아무 것도 모르고 공유하고 음악을 올리고 배경음악을 깔아왔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하자 모든 사람들이 반발했다.

이제는 음악도 돈 내고 다운받고, 카페나 블로그 어디서나 음악을 올리면 안 되고 심지어 팬 카페 메인에 배경음악도 깔면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음악 없는 팬 카페이다. 많은 팬 카페에서 그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영상들을 올리고 보며 그 가수를 더 좋아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되니 ‘팔 없는 빵’이 된 셈이다.

물론 불법이니 안 되긴 하지만, 갑자기 이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팬 카페에 들어갈 맛도 안 난다. 무료다운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카페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안 된다니 너무하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니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는 거다.

우리정부는 꼭 뭔가 할 때 제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이 법을 적용할 때도 차근차근 풀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 호응을 얻어가며 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니 당황스러울 뿐이다.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을 바꿀 때면 천천히 잘 풀여가는 정부가 되면 좋겠다. (2005. 1. 20)

고 이은주 씨는 잘 한 게 없다. 그런데 왜 / 홍윤지 (광남중 1)

자살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비겁한 짓이 아닌가?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됐던 간에 자살이란 것 자체가 정말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목숨이란 것, 생명이란 것은 결코 쉽고 가벼운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이 얼굴에, 이 성격에, 이 부모님과 환경을 지금과 같이 가지고 자라나는 확률은 하늘에서 동그란 구멍이 있는 작은 판자가 떨어졌는데 깊은 바닷속에 있던 큰 거북이 며칠에 한번씩 숨쉬러 물 밖으로 나올 때 그 판자에 있는 동그란 구멍에 머리가 꼭 박힐 확률과도 같다고 한다. 그런 귀중한 목숨을 유명하고 잘 나가던 연예인 이

은주 씨가 갑자기 끊었다는 것은 그녀의 팬들과 가족, 친구 연예인들과 소속사 등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은주 씨가 자살을 한 것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그녀의 죽음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울증이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은주 씨가 죽음으로 해서 나라가 뒤집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자살한 사람이 예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연예인 이은주 씨가 아니라 어느 시골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불쌍한 아저씨였다면 그 아저씨의 자살에 대해 이토록 송고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나라가 이처럼 시끄러울까?

이은주 씨가 자살을 한 것은 우울증이라서 그렇든, 돈 때문에 그렇든 자살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이은주 씨의 죽음이 이토록 당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죽어서 더 유명해질 정도라면 자살을 1위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까? 자살을 하려던 사람들이 “죽으면 저렇게 주위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더 잘해주지 못해 후회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살이란 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지도 모른다.

연예인이 죽었다고 이토록 신문이니 매스컴이니 그녀를 보호해주고 띄워주는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로 보인다. 연예인인 그녀의 죽음을 위로해주고 슬퍼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뒤에도 계속 자살한 이은주 씨를 송고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슬픈 죽음이 없도록 지적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2005. 2. 28)

→ 글을 쓰기 전에 글감이 된 이야기를 아이들과 충분히 나누고 글을 쓰게 한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또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일게 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 공부해야 할 단계가 바로 ‘쓰기 전’공부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11) 때에 따라서는 종이 위에 교사의 의견을 꼼꼼히 적어줄 수도 있어요

* 교사가 꼼꼼히 살펴보고 적어준 사례 몇 가지

→ 주현이는 오랫동안 주마다 시사일기를 숙제로 써오게 하는 선생님과 엔아아이, 글쓰기 독서공부를 해왔던 아이다. 그러다보니 그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생긴 틀이 있었다. 그 틀을 조심스레 깨주기 위해 몇 번 주현이가 쓴 글을 워드로 치고 내 의견을 적어서 뽑아주었다.

봉사의 정신

《몽실언니》를 읽고 / 송주현 (광남 6)

운명은 한 사람의 계획된 인생을 말한다. 만약 부자와 거지의 운명이 부자로만 거지로만 정해져 있다면 한번쯤 바뀌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로 ‘왕자와 거지’는 서로 입장이 바뀌는 이야기이다. 거지에게는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과 자기에 처해진 운명 때문일 것이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전보다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몽실을 생각해보자.

몽실은 우리 나라의 최악의 상태였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아이다. 또한 자기의 아버지는 의무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몽실 어머니인 밀양댁이 화냥년이라고 불렸을 때 아버지의 화가 치밀었는지 운이 나쁘게 다리 병신이 되었다.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복춘댁을 만나며 그 후 좋은 일과 나쁜 일 둘 다 생기게 되었다. 물론 나쁜 일이 더욱 많이 생겨야겠지만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프랑스는 예술을 좋아하며 독일은 규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 중에도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독일인 중에서도 규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몽실이의 희망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지 생각해봐야겠다.

이 세상에는 부모없는 자식없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 또한 친구 등 알아보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와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왜 그런지는 자기의 생각이 거지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몽실언니 같은 사람을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려서 도와주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부터 생각, 걱정해주며 세계에 봉사하는 것이 몽실언니를 위로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하고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보자. (2004. 1. 15)

-주현이의 글을 읽으니 적혀 있기에 웃음이 번졌어요. 글에 아주 푼이 들어있네요. 나비 넥타이에 까맣 톱시도를 차려입고 있는 꼬마 신사처럼 말이에요. 시사 일기를 오랫동안 써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도 논설문체의 형식과 목소리가 담겨져 있네요.

쭈뼌쭈뼌히 살펴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운명은 한 사람의 계획된 인생 (운명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인생) 을 말한다. 만약 부자와 거지의 운명이 부자로만 거지로만 정해져 있다면 한번쯤 바뀌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로 ‘왕자와 거지’는 서로 입장이 바뀌는 이야기이다. (가 있다.) 거지에게는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과 자기에게 처해진 운명 때문일 것이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면(그 상황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하지만(순접으로 이어지는 접속사가 오면 좋겠어요. 하지만을 지우고 읽어도 괜찮네요.) 도전보다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몽실을 생각해보자.

- 주현이는 어찌할 수 없이 운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스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몽실을 살펴보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첫 문장에서 운명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운명을 바꿔볼 수 있다면 바꿔보는 것이 좋겠지(그 예가 ‘왕자와 거지’라고 소개했) 그럴 수 없는 것이 운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실패하기도 하고 또 뜻밖이었어요. ‘와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생각을 했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란 계획된 인생’이라고 말할 때 ‘계획된’ 이 단어가 쭈뼌 딱 맞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말을 정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거든요. 정확하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필연적이고도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운명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인생’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몽실은 우리 나라의 최악의 상태였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아이다. 또한 자기의 아버지는 의무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몽실 어머니인 밀양댁이 화냥년이라고 불렸을 때 아버지의 화가 치밀었는지 운이 나쁘게 다리 병신이 되었다.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북촌댁을 만나며 그 후 좋은 일과 나쁜 일 둘 다 생기게 되었다. 물론 나쁜 일이 더욱 많이 생겨야겠지만(생각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자리잡고(배고 읽어도 괜찮겠어요)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몽실 언니에 나오는 따뜻한 사람들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독후감이란 책을 읽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책 내용이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나 생각등을 하게 했던 부분등을 들어보여 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프랑스는 예술을 좋아하며 독일은 규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 중에도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독일인 중에

서도 규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벌죽 친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과 꼭 필요한 말은 아니니까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몽실이의 희망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지 생각해봐야겠다.

이 세상에는 부모 없는 자식 없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 또한 친구 등 알아보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린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왜 그런지는 자기의 생각이 거지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여운 사냥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뜻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몽실언니 같은 사람을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려서 도와주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부터(이런 사냥들을) 생각, 걱정해주며 세계에 봉사하는(해야겠다는) 것이 몽실언니를 읽고의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하고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보자. (극에서 끝마무리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끝을 너무 거창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지요. 애국적, 도덕적 이런 표현은 읽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늘 누구나 하는 소리꼴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극쓴이의 진정이 담겨있는 목소리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아예 마지막 문장을 빼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주현이 생각은 어떠나요?)

* 한 가지 더! 독후감은 극의 갈래상 감상문에 들어가지요. 주현 이 글은 감상문 보다는 논설문 경향이 더 짙은 글이었어요. 글 처음에도 말했지만 시사 일기를 오랫동안 써오다보니 나만의 글 특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글을 못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쓰는 글의 갈래에 따라 갈래극의 문체와 특성들도 익혀보자구요.

추억과 미래 / 송주현 (광남 6)

영국은 졸업식 날을 무의미하게 생각해 그냥 서류만 받고 끝나는 게 전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졸업식을 무슨 날인 것처럼 거창하게 한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번 졸업식이 거창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이 옳다 생각한다. 자기의 지난 추억과 미래를 되새길 수 있어 좋으며 기분 좋게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졸업식의 의미를 되새겨서 지난 일과 미래를 들여다보자! 지난 입학식을 시작으로 1, 2학년 왕창 놀았던 기억이 인제 가물가물하다. 3학년 또한 학원이 별로 없었지만 그 때부터 학원이 부쩍 늘어나 컴퓨터 못하는 게 서러워 울다 잔적도 많았다. 2학기에 수학경시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가문의 영광이라던 어머니의 말,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위조 싸인 해본 일 등 추억이 몇 년 전 일이 몇 십 년 되(어)버린 듯 하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학원보다 톡톡 튀는 재미가 있다. 5학년 때부터 고학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만큼 더욱 까불었다. 되새겨 보면 안 좋은 일 좋은 일 서로서로 섞여있다.

미래에는 중학생이 되는 만큼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부족했던 성실함을 이루고 싶다. 숙제를 미루어 당일치기를 하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 2008년부터 내신 위주로 수능을 보는 21세기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2004. 2. 12)

→ 영국은 졸업식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군요. 난 몰랐어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졸업식은 거창한 거 맞네요. 음, 너무 간단하게 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주현이 말처럼 의식을 갖춘 졸업식을 통하여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졸업식의 뜻을 되새겨 지난 일과 미래를 들여다보자구요? 좋지요.

주현이 글을 보면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을 썼고, 마지막 문단에서 중학교 생활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어요. 글의 흐름은 좋은데 마지막 문단의 다짐하는 말이 너무 안일하고, 누구나 하는 식의 말이 되고 말아서 아쉽습니다. 애국적, 도덕적, 또는 너무 거창한 마무리는 글의 진정성을 깎아내리기 쉽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글의 흐름이나 문장표현을 살펴봤으면 싶은 곳들입니다.

영국은 졸업식 날을 무의미하게 생각해 그냥 서류만 받고 끝나는 게 전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졸업식을 (무슨 낱인 것처럼) (빼고 읽어보세요. 괜찮지요?) 거창하게 한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번 졸업식이 거창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옳다 생각한다. 자기의 지난 추억과 미래를 되새길 수 있어 좋으며 기분 좋게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있기 때문이다.) 그럼 졸업식의 의미를 되새겨서 지난 일과 미래를 들여다보자! (문단을 나눴습니다.)

지난 입학식을 시작으로 1, 2학년 왕창 놀았던 기억이 인제 가물가물하다. 3학년 또한 학원이 별로 없었지만 그 때부터 학원이 부쩍 늘어나 컴퓨터 못하는 게 서러워 울다 잔적도 많았다. 2학기에 수학경시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가문의 영광이라던 어머니의 말,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위조 싸인 해본 일 등 추억이 몇 년 전 일이 몇 십 년 되(어)버린 듯 하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학원보다 툭툭 튀는 재미가 있다. 5학년 때부터 고학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6학년 때(는)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만큼 더욱 까불었다. 되새겨 보면 안 좋은 일 좋은 일 서로서로 섞여있다.

미래에는 중학생이 되는 만큼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부족했던 성실함을 이루고 싶다. 숙제를 미루어 당일치기를 하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 2008년부터 내신 위주로 수능을 보는(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더욱 학교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내가(주현이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21세기에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내 이야기를 하다가 21세기를 끌어가야 할 우리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2004. 2. 12)

주현이 이 글도 보면 논설문의 어조로 글을 썼어요.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글은 나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어조로 글을 써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논설문의 어조로 쓰다보니 글의 마무리도 너무 거창하게 흘러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무리가 글의 실속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

◆ 마무리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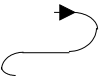
지금까지 긴 시간 글다듬기는 왜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글다듬기보다 더 먼저 인 것이 아이와 교사의 친밀함, 믿음, 이런 것들이란 것을 잊지 말고, 글다듬기를 할 경우 아이가 정성껏 쓴 글로,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살펴서 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제가 쓴 글을 정성껏, 꼼꼼히 다듬는 과정에서 많이 깨닫고 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흐뭇해한다. 쉽지 않은 게 이 글다듬기 부분이지만 놓쳐서도 안 될 공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글의 갈래로 보는 대강의 글다듬기 기준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서사문	저학년은 갈래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쓰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표현되었는가를 보면 된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찌하였다.’는 여섯 가지가 분명히 드러났는가. * 글의 마무리가 상투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찌하였다.’는 여섯 가지가 분명히 드러났는가. * 글이 관념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말로 씌어졌는가.
감상문		* 느낌이나 생각이 절실히 드러났는가.	* 느낌이나 생각이 자신의 말로 깊이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설명문		*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 단락의 구분은 되었는가.	*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 단락의 짜임이 효율적인가. (내용의 구분, 예시, 비교, ...)
주장글		*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또렷이 드러났는가. * 내 생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로 쓰고 있는가 (형식만 갖추고 자기 목소리가 없는 글은 아닌가.)	*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또렷이 드러났는가. (이 글을 읽어 줄 대상을 생각하고 썼는가.) * 내 생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로 설득력 있게 쓰고 있는가. * 단락의 짜임이 효율적인가. (전체의 틀을 본다. 하나의 단락 안에 중심문장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글이 이어질 때 힘 있는 글이 된다.)

* 모든 글은 아이들이 정성껏 쓴 ‘감동’과 ‘재미’가 있는 글을 전제로 한다.

<참고> 교정부호

부 호	교정 내용	보 기
	사이를 붙임	3년 전 부터 배웠다.
	사이를 뗀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글을 집어 넣음	협동을 우리는 생활하여야 한다.
	글을 고침	진지를 할머니께서 밥을 잡수신다.
	줄을 바꿈	“아! 하늘이 너무 푸르다.” 철수는 손을 들면서 말했다.
	왼쪽으로 옮김	외래어를 쓰지 말자.
	오른쪽으로 옮김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앞과 뒤의 순서를 바꿈	빨리 학교로 뛰어갔다.
	줄을 이음	철수는 집을 나섰다. 가방을 휘두르며 학교로 갔다.